





국제앰네스티 스위스 지부의
무기거래조약 캠페인

목차

CONTENTS

인사말	2	이사장	Chair's Letter
	4	사무처장	Director's Letter
인권 보고서	9	사무총장 서문	Foreword
	16	대한민국 보고서	Republic of Korea
	22	북한 보고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활동 보고서	30	캠페인	Issue Campaigns
	38	인권교육	Education
	42	미디어활동	Media Work
	48	대중홍보활동	Public Campaigns
	52	회원활동	Group & Network
	54	회원성장	Growth
	58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62	거버넌스	Governance
	64	2014년 돌아보기	At a Glance 2014

*별도의 표기가 없는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국제엠네스티에 있습니다.

단한 사회 뚫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전경옥

2014년 한해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정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모두 표류시켰습니다. 소통과 결단은 마비되었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본질을 비켜난 싸움에 사건이 이용되었고 갈등과 호소의 핵심은 방향을 잃은 채 엉뚱한 상처를 전염시켰습니다. 인권의 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성 **국가보안법**이 과시 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 통제, 법 해석 기관들의 상호 불일치,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책임 간의 불협화음 등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감시와 처벌이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한다는 염려를 가시화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나이지리아 보코 하람의 전쟁범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 아프리카 정부군과 반정부군간의 충돌 그리고 IS의 테러처럼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비국가 단체들이 민간인에게 자행하는 인권

침해적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우울한 소식들 속에서
 단비처럼 내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펼쳐온 캠페인의 결과로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된 것입니다. 민간인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재래식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채택한 이 조약은 향후
 민간인 희생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 파괴, 전쟁, 빈곤, 그리고 의미 없는 죽음에 대한 분노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험들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류애 혹은 본질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그 뿌리는 시장 자본주의와 패권주의에 있습니다. 이 위험한
 사회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문제의 해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의 관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빠른 해결과 대응을 요구하는 요즘이기에
 국제앰네스티는 희망의 촛불을 더 많은 곳에서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경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김희진

2014년은 ‘생명’의 가치에 대해 고민했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월호에서, 야외 공연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조차 믿기 어려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생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좀 그만하라’고 다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은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다른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시민들의 분노는 좌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국가의 정부들이 항상 바라는 시나리오입니다. 국민들의 무기력함과 무관심은 인권침해를 가속화하고 확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들과 함께 수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활동들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터키와 바레인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포되는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을 막은 것은 오랜만에 맞본 직접적인 쾌거였습니다. 또한 ‘이름표없는 경찰을 찍어라’ 캠페인은 ‘채증’과 같은 경찰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제동을 걸었고, 시민들을 직접 경찰을 감시하는 주체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구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로써 한국사회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험에 대해 앰네스티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을 통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고용노동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을 전달하였으며 ‘농축산업이주노동자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소비자, 이주노동자, 생산자 공동선언’으로 캠페인을 마무리했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지 2주일도 되기 전에 고용노동부는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는 계속 모니터해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활동들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인권친화교실’ 프로그램이 전국 2백 여 개의 초등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인권이 어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이 사업은 벌써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통해 인권을 바라보는 ‘영화로 보는 인권’과 ‘시크릿액션’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려 노력했습니다. ‘인권입문과정’, ‘인권심화과정’, ‘편지쓰기마라톤패키지’, ‘언론상’ 등 매년 진행되는 사업들은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한층 발전되었습니다.

인권의 내용뿐 아니라 이를 전달하고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언론활동과 SNS홍보가 더욱 활발해졌고, 새로운 모금방식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앰네스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활동은 더욱 강화시키고 작년에 실행하지 못했던 활동은 새롭게 시도하는 앰네스티의 2015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더 필요하고 바람이 불면 더 거세지는 불(火)입니다.

이번 여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김현진



Part 1

인권 보고서

Human Rights Report



2014년 1월 31일, 아르무크
난민캠프에 고립된 주민들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의
식량지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 unrwa.org

들어가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살릴 셰티

Secretary General

Salil Shetty

“시리아 정부군과 무장단체 간의 충돌은 야르무크 지역을 별집으로 만들었어요. 시리아 외곽에 위치한 야르무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자 다른 지역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저는 인도주의 단체에서 일하는 미디어 활동가였지만 복면을 쓴 남성들은 인도주의 활동가와 무장한 반대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계속해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저는 몸을 숨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시리아에서 온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경우, 비자 없이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나마 레바논이 덜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인종차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권리를 빼앗긴다고 들었습니다.”

- *아메드 Ahmed

*시리아 출신의 팔레스타인 난민인 아메드는 이집트와 터키를 거쳐 이탈리아로 가는 위험한 항해 끝에 유럽으로 망명했다.

인권을 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전쟁의 고통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모두에게 2014년은 힘든 한 해였다. 각국 정부들은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말로만 떠들었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하고, 바꿀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믿는다.

무력분쟁의 실행을 통제하는 ‘국제인도주의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민간인에게는 절대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간인과 병사를 구분하는 원칙은 전쟁의 공포 한가운데에 갇힌 사람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그러나 분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민간인이었다.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 난지 20년이 흘렀지만 위정자들은 여전히 민간인 보호 규칙을 스스로 무시하거나 타인이 위반하는 것을 알고도 모른체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민간인들의 희생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을 피해 시리아 국경으로 피난 중인 이라크 예지디(Yazidi)족 © REUTERS/Rodi Said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벌써 여러 해가 지나도록 시리아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결과 구할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들을 떠나 보내야 했다. 2014년까지 4년 동안, 이 문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20만 명이 넘는다. 이 중 많은 수가 민간인이었으며, 대부분 정부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살아남은 시리아 국민 400여만 명은 난민이 되어 타국을 떠돌고 있다. 고향을 떠난 시리아 국내 실향민 역시 760만 명 이상에 이른다.

시리아 사태는 이웃나라 이라크의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시리아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칭 ‘이슬람국가 Islamic State(IS, 공식 명칭은 ISIS)’라는 무장단체는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납치와 처형 형태의 살인,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 동시에,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들은 이라크 정부의 암묵적인 지원 하에 수니파 민간인 수백여 명을 납치하고 살해했다.



7월 24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치솟고 있는 연기

© EPA/MOHAMMED SABER



베네수엘라 정부의 Stop the arms 액션

지난 7월에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인해 2천 여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욱이 사망자 중 최소 천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민간인이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상세한 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냉담한 무관심과 전쟁범죄로 얼룩진 것이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로 무차별 로켓포를 발사하여 6명을 숨지게 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던 무장단체 보코하람(Boko Haram)이 치북 마을의 여학생 276명을 납치하면서 나이지리아 정부군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나이지리아 보안군 역시 보코하람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중 일부가 동영상으로 촬영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8월 살해된 사람들의 시신이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을 공개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는 다국적군이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파간의 분쟁이 불러온 폭력사태 때문에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고문과 강간, 대량살인은 국제 매스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역시나 사망자 중 대다수는 민간인이었다.

가장 최근에 탄생한 국가인 남수단에서는 정부와 반군 간의 무력분쟁이 일어나 수 만여 명의 민간인들이 죽고, 200만 명이 집을 버리고 달아나야 했다. 분쟁당사자 양측 모두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인권침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가 나서야

159개국의 인권현황을 분석한 이번 연례보고서에서도 명백히 드러나듯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은 병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전쟁에는 언제나 민간인들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 앞으로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에 맞서고,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명백하고도 실질적인 조치 하나가 실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거부권 행사를 자발적으로 자제한다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미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현재 약 40개의 국가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것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실패는 대규모 잔혹행위를 막지 못한 것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마을과 도시를 휩쓴 폭력사태를 피해 떠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지만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거부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과오를 누구보다 열심히 비난한 국가들은 정작 난민이 필요로 하는 재정적 지원과 정착지 제공 등의 필수적인 지원에는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말까지 재정착에 성공한 시리아 난민은 2%도 채 되지 못했다. 2015년에는 이 수치가 반드시 3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지중해 한 복판에서는 필사적으로 유럽 땅에 닿으려던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일부 EU 회원국에서는 실종자 수색이나 구조 작전도 지원하지 않았다. 사망자 수가 충격적일 정도로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역시 한 몫을 했다. 분쟁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는 인구 밀집 지역에 폭발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리주의자측과 친우크라이나측 모두가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우크라이나 마을의 민간인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득력이 없긴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분리주의자측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보코하람에 납치된 소녀들을 위한
뉴질랜드 지부의 액션



“난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세계난민의날,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수용소에 있는 망명신청자의 시위
© Haim Schwarczenberg

위반했을 경우 철저한 처벌과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 보호 규칙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스리랑카의 내전 당시 벌어졌던 인권침해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결정을 환영한다. 2009년 불과 수 개월 만에 민간인 수만여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위원회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난 5년간 벌여 왔다. 이러한 책임 추궁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다른 인권 영역에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 2006년 이후 발생한 실종자 수가 2만 2천명이 넘는 멕시코에서 작년 9월 대학생 43명이 강제 실종됐다. 대부분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과 공모한 멕시코 경찰이나 군으로부터 표적이 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 피해자들의 시신에는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멕시코 연방과 주 정부는 범죄를 조사하여 정부 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전혀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권위기상황을 은폐하려 했다. 불처벌과 부정부패, 군국화가 만연한 상태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NGO와 시민사회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탄압이 이어졌다. 어떤 의미로는 시민사회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정이기도 했다. 러시아는 냉전시대의 용어이자 무시무시한 ‘외국기관법’으로 더욱 숨통을 조여 갔다. 이집트 NGO들도 무바라크 전 대통령 시절의 ‘협회법’이 동원되어 무자비한 탄압을 당했다. 그 어떤 반대의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조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집트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열었지만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주요 인권단체들은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홍콩 우산혁명 © Leung Ching Yau Alex

위협과 폭력에 용기로 맞선 사람들

이전에도 늘 그러했듯이, 자신들을 향한 위협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다. 홍콩에서는 수만여 명의 시위대가 정부의 위협에 저항하고,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압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라는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한 이 사건은 이른바 ‘우산 시위’로 알려지게 되었다. 변화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놀라운 일도 실현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준국이 50개국을 넘어 석 달이 지난 12월 24일, 국제적인 무기거래조약이 발효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여러 NGO들이 무기거래조약을 위해 무려 20년간 함께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늘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러나 이제, 무기거래조약은 실재하는 조약으로서 잔혹행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거래를 금지시킬 것이다. 그렇기에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내법 도입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채택된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고문방지협약은 국제앰네스티가 수년 간 캠페인을 벌인 또 하나의 협약으로, 1977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협약 채택



무기거래조약 발효를 기념하는
애니메이션의 스틸이미지



필리핀 경찰의 고문 실태를 다룬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발표에
참석한 사무총장

30주년은 축하할 일인 동시에, 아직도 전세계에 고문이 만연해 있음에 주목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2014년에 전세계적으로 고문중단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고문반대를 외치는 메시지는 지난 12월에 발표된 미국 상원 의회 보고서 때문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 이후, 수년 동안 고문을 용인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고문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임에도 여전히 자신은 부끄러울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놀라웠다.

인권 없이는 안보도 없다

미국부터 시리아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끔찍한 인권침해행위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다.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들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위험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다. 인권 없이는 안보도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암담한 듯한 상황에서도 혹은 어쩌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국가 정부나 비국가조직들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침해행위에 맞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현실이다. 미래에 2014년을 돌아봤을 때, 2014년 한 해 동안 겪은 일들이 최악의 순간이자 딛고 일어날 최저점이 되어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든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참사 30년을 맞아 인도 보팔
지역을 방문한 살릴 셰티 사무총장

대한민국 보고서

대한민국(남한)

대통령: 박근혜

국무총리: 정홍원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정당한
단체행동에 제한을 받아 노동권이 침해되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아래서 착취를 당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었다.
경찰이 평화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최소 635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Republic of Korea

배경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수많은 우려가 나왔다. 4월 세월호 참사로 3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들 대다수는 학생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이 두 건의 간첩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가 제기됐다.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아래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 축소, 유급 주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불법 파견, 열악한 생활 조건 등을 견뎌야 했다. 많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국적을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을 받았다. 농업노동자를 노동시간, 휴게, 휴일 등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차별적이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고, 여기에 덧붙여 농업노동자 적용 예외 조항으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노동 착취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다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도록 고용주들로부터 강요했다고 말했다. 강압수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협과 폭력이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착취를 목적으로 한 속임수에 의해 채용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진정을 낸 이주노동자가 조사 등 진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같은 고용주 아래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또 다시 인권침해를 겪을 위험이 있었다. 사업장을 벗어나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고용주가 출입국 당국에 ‘이탈’로 신고해, 체포되어 강제출국 당할 위험이 있었다. 고용허가제로 인해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려웠다. 일부 고용센터 직원은 이주노동자들이 진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했다. 결국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주는 법적 제재를 거의 받지 않았다.¹



1



2

1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ASA 25/004/2014),
[www.amnesty.org/
en/library/info/
ASA25/004/2014/en](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5/004/2014/en)

1. 작업 중인 농업이주노동자들

2.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한국어 보고서 표지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이 점점 더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일부 노동조합 지도부는 단체 행동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형사기소를 당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산하 쌍용자동차 지부 전 지부장은 2013년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정우 전 지부장은 서울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분향소 철거를 하자 이를 막던 중에 연행되었다. 김정우 지부장은 원래 형기를 마치고 2014년 4월 보석 석방되었다. 그러나 더 높은 형량을 요구하는 검찰측 항소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014년 법외노조로 판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9월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항소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응에 불만을 표하며 평화로이 집회, 시위를 하던 이들을 경찰이 해산, 진압 하는 과정에서 3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경찰은 사고 이후 몇 개월 간 계속해서 거리 시위를 제한했다.

6월 경찰이 밀양에서 평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위를 하고 있던 300명 가운데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고전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진정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었다.



1

1. 김정우 전 지부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엠네스티 회원들의 편지



2

2. 경찰방송 차량에 올라갔다가 허리가 꺾이며 끌려 내려지는 학생 © 참세상

표현의 자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 수치는 2013년 보다 낮다. 그러나 2013년 한 해 129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거나 기소되어 지난 10년 간 가장 높은 수를 기록해 여전히 우려된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 및 당원 6명이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된 활동으로 구속되었다. 8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2월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당 해산을 청구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당이 해산된 것도 1958년 이후 처음이다.



1

1. 정당 해산판결 판결 직후 열린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기자회견

2. 2014년 수감된 양심적병역거부자 김성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연말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최소 635명이 수감되어 있었다. 군대 내에서 두 명이 사망하면서 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나 의무 군복무 제도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8월 다른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기인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²

2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 법률 의견서 (POL 31/001/2014), www.amnesty.org/en/library/info/POL31/001/2014/en



2

무기거래

한국은 집회·시위 진압에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들에 상당량의 최루탄을 수출했다.³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다른 인권 단체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한국 정부는 1월 바레인에 최루탄 선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에 서명하였으며, 한국은 2014년 말 현재 비준 및 관련 국내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⁴

3 한국: 대통령 취임 1년에 즈음한 공개서한 (ASA 25/001/2014), 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5/001/2014/en

4 한국이 바레인으로 최루탄 공급을 중단하다 (NWS 11/003/2014), www.amnesty.org/en/news/south-korea-suspends-tear-gas-supplies-bahrain-2014-01-07



1

1. 최루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바레인 시위 현장
© MOHAMMED AL-SHAIKH/AFP/Getty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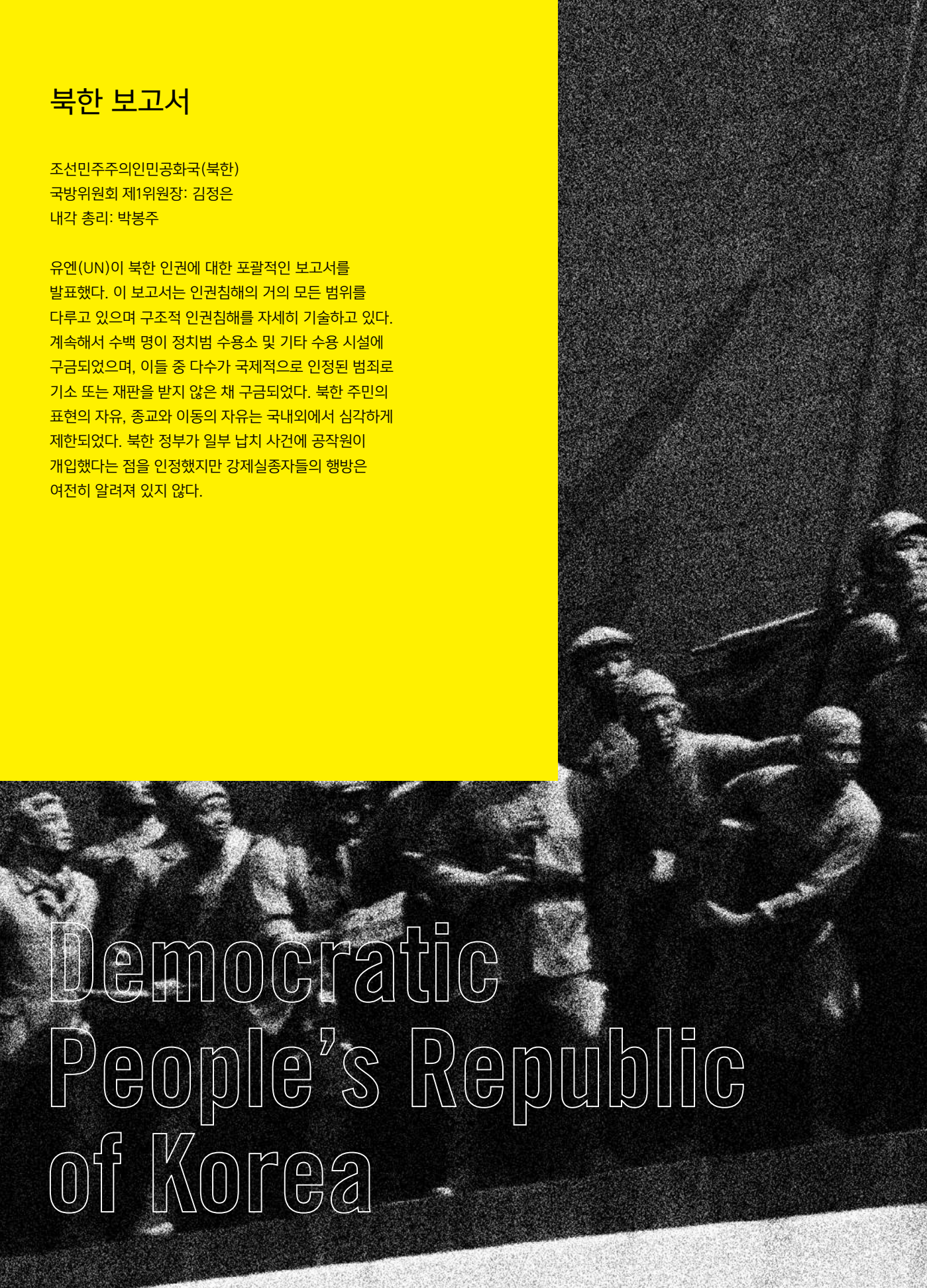
북한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내각 총리: 박봉주

유엔(UN)이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침해의 거의 모든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구조적 인권침해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계속해서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기타 수용 시설에 구금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범죄로 기소 또는 재판을 받지 않은 채 구금되었다.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와 이동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심각하게 제한되었다. 북한 정부가 일부 납치 사건에 공작원이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강제실종자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배경

2013년 12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이 재판을 받은 후 처형되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2014년 장성택과 관련된 정치적 반대파를 처형했다는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체제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 숙청의 시작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묵인 하에 식음료나 의류 좌판과 같은 민간 경제는 계속 확장되었다. 북한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은 눈에 띄는 경제개방으로 소득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가 개방되었더라도 일반적인 인권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관광산업 등을 통해 외화확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는 외국인이 당국이 장려하지 않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생각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간주한 경우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다. 정보의 자유는 제한되어 있으며, 인터넷은 공개적으로 접속할 수 없었다. 당국은 인터넷 대신 '인트라넷'을 구축했다. 5월 평양에서 한 아파트가 붕괴하면서 300명이 사망하자, 조선중앙통신이 이를 신속히 보도하였으며 정부는 이례적으로 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평양에 주재하는 외신은 주민들이 사고에 분노를 표했으며, 정부가 부실공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국제감시

2월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¹ 37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에 만연해 있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담았으며, 이들 인권 침해 대부분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보고서는 3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으며,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환영하며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이사회에 속한 국가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²

5월 북한을 대상으로 두 번째 보편적정례검토(UPR)가 실시되었다. 북한 정부는 2010년 첫 번째 보편적정례검토보다 협조적이었으며,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이행부분을 포함하여 북한이 지지하는 권고안에 대해 답변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특히 인권상황에 관하여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및 북한인권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협력 등 권고안 절반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납치된 외국인을 송환하라는 등 구체적 권고안은 거부했다.³

12월 유엔(UN) 총회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강제실종

8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은 해외에서 북한의 공작원에 의하여 납치된 후 실종된 47명의 행방을 확인해 줄 것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 대부분은 납한 시민이었다.

북한 정부는 5월 일본 정부와 납치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가지고, 19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난 일본 국적자 납치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재조사보고서에 북한 공작원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되었다고 북한 정부가 공식 확인한 일본인 12명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보고서의 초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북한: 유엔 안보리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보도자료) www.amnesty.org/en/for-media/press-releases/north-korea-un-security-council-must-act-crimes-against-humanity-2014-02-17

2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반인도적 범죄 종식을 위한 긍정적 진보(보도자료) www.amnesty.org/en/for-media/press-releases/north-korea-un-vote-positive-step-end-crimes-against-humanity-2014-03-28

3 북한: 책임성 강화, 국제사회 공조가 시급하다(ASA 24/006/2014) 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4/006/2014/en



1

1. 1950년에 북한으로 납치되어 자강동 수용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이성환씨의 결혼사진

표현의 자유

당국은 계속해서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북한에 독립적인 시민사회단체나 언론, 정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이 해외 미디어자료를 소지하려면 당국에 조사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료를 시청하거나 구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종교의 자유

북한에서는 어떠한 종교행위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주민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종교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⁴ 호주 선교사인 존 쇼트(John Short)는 종교적 신념을 알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3월 공개 사과한 후에 추방당했다. 남한 출신 선교사 김정옥은 지하교회를 설립하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변호사 접견이 허용 되지 않았다. 김정옥은 무기교화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관광객인 제프리 파울(Jeffrey Fowle)은 청진의 클럽에 성경을 두고 갔다는 이유로 5월 체포되었다. 10월 석방되기 전까지 재판 없이 5개월 이상 구금되었다.



1

1. 조선혁명박물관의 기념물

4 북한: 미국 관광객 억류, 기독교인 박해 중단해야(보도자료)
www.amnesty.org/en/for-media/press-releases/north-korea-end-persecution-christians-after-reports-us-tourist-detained-20

이동의 자유

국경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2013년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온 북한 주민의 수는 2012년과 비교해 줄어들었다. 국경에서 중국산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한 전파방해장치 등 감시 기술이 강화되어 월경의 어려움이 증가했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다. 북한 주민들의 휴대폰 이용은 북한 내에서만 통용되는 폐쇄된 네트워크에 국한되어 있었다.

한 살 된 아기를 포함해 북한이탈주민 약 29명이 8월 초순 중국에서 구금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이들이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기소된다면 구금과 고문, 그리고 강제노동과 같은 부당대우를 겪을 수 있다.⁵

5 중국: 추가정보: 가족들 북한으로 강제송환(ASA 17/048/2014)
www.amnesty.org/en/library/info/ASA17/048/2014/en

자의적 체포와 구금

수백 명이 정치범 수용소 및 다른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으며, 수용자들은 초법적 처형과 고문, 휴식이나 식량을 박탈한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대우를 당해 만연해있는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침해를 겪었다.

이들 중 다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한 재판 없이 '연좌제'로 구금되었다.

위성사진을 통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뿐 아니라 2013년 말까지 일부 수용소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지만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다. 북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미국 시민인 케네스 배(Kenneth Bae)와 메튜 토드 밀러(Matthew Todd Miller)는 북한 정부에 대한 '적대행위'로 각각 2013년과 2014년 연이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11월 석방되기 전 까지 이들은 각각 15년과 6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시작했었다. 8월에 있었던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케네스 배(Kenneth Bae)는 수용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사는 동안 건강이 악화 되었을 뿐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1



2

1. 북한에서 가장 큰 정치범 수용소인 16호 관리소의 위성사진 © DigitalGlobe 2013

2.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묘사한 영상의 스틸 컷

식량권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은 9월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했다.

지난 2년간 수확량이 증가했지만 2014년 가뭄으로 8월 하루 1인당 식량 배급 수준은 410그램에서 250그램으로 감소해 식량 수급의 부족이 임박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만성 영양실조를 겪는 비율이 비교적 높아 5세 미만 아동의 경우 1/4이 만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다.

세계식량계획과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이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식량 원조가 대상 집단에 전달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시도 역시 여전히 제한되고 있었다.



1

1. 북한의 김일성 광장



국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

Part 2

활동 보고서

Activism Report

캠페인

2014년, 전 세계에서 수 많은 민간인들은 무력분쟁으로 희생되었으며, 안보를 내세운 정부에 의한 인권탄압이 지속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위축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한국산 무기의 수출로 인해 분쟁지역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음을 알리며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9월에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무기와 인권	31
My Body My Rights	32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33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3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35
국내 인권상황 모니터링	36

Issue Campaigns



무기와 인권

최루탄을 포함한 한국산 무기류의 수출 금지를 인권단체들과 함께 촉구한 결과 2014년 1월, 한국 방위사업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지부 최초로 시도한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성 프로젝트>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무기거래조약 캠페인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 업체가 바레인으로 16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산 최루탄의 바레인행 선적을 막아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1월 방위사업청이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유보하겠다는 굿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지부와 연대 단체들은 최루탄을 포함한 무기류가 바레인이나 터키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 수출되지 않도록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바레인 워치 ^{Bahrain Watch} 대표단을 초청하여 정부부처와 면담하고, 공개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회원 및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무기거래조약 ^{Arms Trade Treaty} 은 2014년 12월 24일, 발효와 동시에 공식적인 국제법이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미 2013년 6월에 조약에 서명했으며, 2014년 9월에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성 프로젝트 1기>에 참여한 회원과 시민들도 무기거래조약 비준 캠페인에 함께 하였습니다.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캠페이너들은 캠페인 기획부터 실행, 평가를 모두 경험하며 무기거래조약을 비준을 주제로 세가지 형태의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거리탄원팀은 '무기 대신 꽃'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고, 퍼포먼스팀은 무기로 인해 희생 당한 사람들을 퍼포먼스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로비팀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방문했습니다.

7월,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인해 하마스와의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30일 동안 이스라엘/가자 지구에서 수천 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온라인 탄원과 긴급행동UA <STOP! 교전을 멈춰라!>을 진행했습니다. 8월 말, 외교부에 7,000통이 넘는 탄원과 국제앰네스티의 우려사항을 전달했습니다.

9월, 외교부는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한국지부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무기거래조약이 강력한 국내법으로 제정되기 위해 비준동의안 검토 및 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2

1. 한국정부의 對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 바레인 워치 대표단의 국회 토론회

My Body My Rights

‘정말 나의 몸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나요?’

My Body My Rights^{나의 몸, 나의 권리} 캠페인을 시작하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국제엠네스티는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통해 모든 사람이 어떠한 공포나 강압, 차별 혹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불필요한 짐 없애기: 네팔의 성차별과 자궁탈출증>보고서 요약본을 번역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에 시달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 못해 겪는 네팔 여성들의 자궁탈출증을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10만 통이 넘는 탄원을 전 세계에서 받아 네팔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지부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영화 <프레스스> <자, 이제 댄스타임>를 관람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인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의 강간 가해자가 18세 미만의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온라인 탄원을 펼침과 동시에 타투 사진액션과 네팔, 마그레브 3국에 보내는 엽서 탄원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학생네트워크, 인천 선인고, 대구 남산고, 김해 중앙여고, 무늬만학교, 홍천 서석고를 방문하여 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인 <Speaking out!>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나의 권리로서 성과 재생산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



2

1. 타투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MBMR 액션패키지
2. MBMR 액션패키지에 참여한 학생들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5만 명 시대. 이중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8%, 약 2만 명으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 노동자의 개념이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 실제 농업 노동자의 상당수인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와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지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밥상이 보다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이하 인권밥상)’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10월 20일,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필두로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인이 소비하는 먹거리의 상당수가 이주노동자의 손에서 길러지고 있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인터뷰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강제노동과 착취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활동과 더불어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국제식품연맹(IUF), 아이쿱생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한살림, 한겨레21 등 총 8개 단체와 함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근로기준법 63조의 폐지 및 고용허가제 개정, 숙소기준강화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99조의 개정 등 국제엠네스티의 주요권고사항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인권밥상 캠페인은 한살림과 아이쿱생협의 전국 매장을 통해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만났습니다.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한겨레21의 8회의 걸친 연속기사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뿐 아니라 대안과 정부의 반응까지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거리에 나가 시민들과 만나는 등 다양한 단위의 노력을 통해 한국에서는 16,351통의 탄원을 모았고, 네팔과 벨기에를 비롯 전세계 128개국에서 탄원이 이어져 12월 31일 고용노동부에 28,436통의 탄원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정부에 책임을 다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실태조사를 약속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지부는 앞으로 ILO, 유엔 등 국제 기구를 통해 이주노동자 문제를 알려내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1

1. 농촌 이주노동자 © 김정용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활동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키려다 폭력과 고문,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등 지역을 불문하고, 연일 인권침해 보고가 끊이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한국지부는 온라인 액션과 올해의 케이스, 긴급행동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12월에는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을 통해 4만 통 이상의 탄원편지를 발송하여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형성했습니다.

상반기에 발행된 326건의 긴급행동 중에 13건을 한국지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매 달 긴급행동 네트워크 회원들에게 인권침해 사례를 안내하여 함께 탄원편지쓰기에 동참한 결과 1,738통의 편지와 이메일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월에는 편지쓰기마라톤 <편지 한 통의 기적>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앰네스티가 했던 수많은 탄원활동 중에서도 국제적인 압력이 시급한 6사례와 한국지부에서 추가한 1사례를 포함하여 7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 및 지지자, 그리고 인권친화교실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42,97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전 세계 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 수 만 명이 쓴 편지는 2,339,381통에 달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월에는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 '하카마다 이와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7월에는 2012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이자 벨라루스의 저명한 인권옹호자 '알레스 비알랴스키'가 석방되었습니다. 2013년 편지쓰기마라톤 사례자들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의 수감된 언론인 '에스킨더 네가'는 수감환경이 개선되어 가족들이 면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인권옹호자 '툰 아웅' 박사는 10년이 감형되어 최근 석방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원이 모여 만드는 커다란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 많은 회원과 지지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



2

1. '2014 편지쓰는 밤'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2. 조기 석방된 벨라루스의 '알레스 비알랴스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이었던 김성민씨가 11월 18일 입영을 거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1년 6월 형을 선고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최소 635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수감 중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 Individual at Risk> 사례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김성민(활동명 들깨)씨를 선정했습니다. 앰네스티 대학생 네트워크 활동을 시작으로 앰네스티의 여러 캠페인에 참여해온 그는 5년 전, 대학생 네트워크 모임에서 초대된 병역거부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병역거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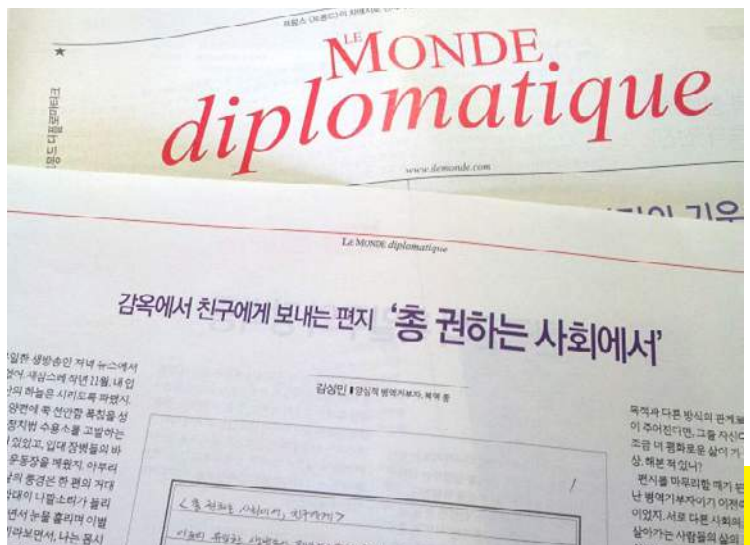
2014년 <편지 쓰는 밤>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성민씨를 위해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평화의 꽃 액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회원 22명이 정성스럽게 적어 주신 카드와 응원의 사진은 포토북에 담겨 수감되어 있는 성민씨에게 보냈습니다.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는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국제법률가위원회^[C], 국제화해단체^{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ar Resisters' International} 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믿음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하거나 군복무를 거부하는 개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상·양심·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가 담겨 있습니다.



1

1. 성민씨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는 '평화의 꽃' 액션
2.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김성민의 편지 '총 권하는 사회에서'



2

국내인권상황 모니터링

한국에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후퇴한 한 해였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10여 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1월,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 방한을 시작으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및 당원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에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해산결정을 내렸고, 한국지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안보의 우려를 이용해 인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즈음한

살릴 셰티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 서한 발송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살릴 셰티^{Salil Shetty} 사무총장은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 한 것에 대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서 셰티 사무총장은 전국철도노조 파업,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등을 언급하며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약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1



2

1. 헌법재판소를 나서고 있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 © 참세상
2.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과 경찰 © 청년좌파

집회·시위의 자유 및 경찰력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경찰력 사용에 대한 집회·시위 모니터링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농성장을 행정대집행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집회에서도 경찰력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 연대단체들과 함께 시민채증단을 운영하고, 특히 ‘이름표 없는 경찰을 찍어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경찰력을 남용하는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월에는 시민들이 제보한 이 사례들을 모아 ‘조끼나 장비에 가림 없이 식별 표식을 부착’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권고를 요청하였습니다.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을 위한 <긴급행동>

3월 김정우 전 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전 세계 국제엠네스티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쓴 손편지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김정우 전 지부장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달 후인 4월, 김정우 전 지부장은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1



2

1. 광화문에서 1인시위 중인 시민을 끌고 가는 경찰
2.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과 경찰 © 청년좌파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국제앰네스티의 핵심활동입니다. 교육을 통해 인권활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층을 넓히고, 인권존중의 문화가 사회에 뿌리내려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과 지지자들이 더욱 쉽게 인권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인권친화교실'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인권친화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의 학급들이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하고 운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인권친화교실	39
인권교육 프로그램	40



Education

인권친화교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인권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인권교육은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한국지부에서도 작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권친화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전 세계 25여 개 국가에서 동참하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글로벌 프로젝트 <인권친화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모든 학교가 인권의 내용과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전략적 인권교육 프로젝트인 ‘인권친화교실’을 전국 202학급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인권친화학교 만들기>를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급 단계에서부터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인권친화교실’에 동참한 초등학교급은 모두 202학급으로 경기·인천지역 101학급, 서울지역 47학급, 대전 7학급, 기타지역에 47학급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학년별로는 6학년 125학급, 4학년 41학급, 5학년 31학급이 참여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별 인권 약속(인권의 개념과

세계인권선언)’, ‘차이와 차별’, ‘빈곤과 인권’, ‘편지 한 통의 기적’을 주제로 만들어진 패키지와 교안이 총 4회에 걸쳐 배포되어 인권의 개념부터 실천까지 단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인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뉴스레터를 통해 교사들에게 학급 운영과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겨울방학 중에는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교사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인권친화교실’은 서울·경기·충청지역 5개의 시범학급 교사들과 기획과 운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급 교사들은 회의를 통해 수시로 ‘인권친화교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배포된 교육 자료와 방문교육의 결과를 평가하여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학교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의 변화는 곧 전 세계 인권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권친화교실’은 2년의 시범기간 동안 실제 수업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찾고, 교사 지지자들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학교 전체의 인권문화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



2

1, 2. 인권친화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범학급 어린이들

인권교육 프로그램

후원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인권의 이슈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화와 단기교육, 포스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마련 하였습니다. 더불어 대중강연을 통해 국제앰네스티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과 그 영향력에 대해 생생하게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대중강연

오드리 고크란 Audrey Gaughran 글로벌 이슈 국장 Director of Global Thematic Issues 이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채택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월 한국을 방문,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과 두 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크란 국장은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 조사관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국장, 기업과 인권 국장을 거쳐 2010년부터는 무기거래, 기업과 인권, 사형, 난민과 이주노동자 이슈를 총괄하는 글로벌 이슈 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월16일 첫 번째 강연에서는 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 8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를 누빈 고크란 국장의 현장경험과 앰네스티 운동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서울대 인권센터와 공동주관으로 열린 강연에서는 특별히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한 대담이 마련되어 기업이 가져야 할 책무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마 강 무이코 Norma Kang Muico 아시아-태평양 이주노동자 인권조사관 Asia-Pacific Migrants' Rights Researcher 이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발표를 위해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무이코 조사관은 2008년 동아시아 조사관으로 일하던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남용을 조사한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보고서를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강연에는 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무이코 조사관의 경험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1



2

1. 강연 중인 오드리 고크란 글로벌이슈 국장
2.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한국인권 7년의 기록' 포스터

사형폐지포스터를 빌려드립니다

세계사형폐지의 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과 전 세계 300여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도시^{Cities of Life} 행사를 기념하여 사형폐지포스터 대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포스터 포 투모로우^{Poster for Tomorrow}라는 국제단체의 프로젝트 '사형은 정의가 아닙니다 DEATH IS NOT JUSTICE'에 출품되었던 작품 중 40점을 전시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빌려준 이 프로젝트는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포스터 전시에 그치지 않고,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을 함께 진행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권입문과정

한국지부의 대표적인 인권교육프로그램인 '인권입문과정'이 10월16일부터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52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올 해로 7회를 맞은 인권입문과정은 현장의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이 함께 국내외 인권 현실을 참석자들과 함께 나누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총 6강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의 첫 시간은 참가자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들어보는 인권감수성 키우기로 열었습니다. 이어 기후변화와 인권, 한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던 집회시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여성과 인권, 우리사회와 변화하는 인권 등을 주제로 6주 간의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앰네스티 수요극장

영화 속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를 돌아보는 '앰네스티 수요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대 후문에 위치한 작은 극장 필름포럼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첫째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권이슈가 담긴 영화를 상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상영작 '프랭크'를 통해 선입견과 편견의 문제를, '지미스홀'에서는 통해 집회와 사상의 자유를 돌아보고, '카트'와 '내일을 위한 시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1. 고양평화 예술제·박람회에 전시된 사형폐지 포스터
2. 필름포럼과 함께 한 '앰네스티 수요극장' 포스터



2

미디어활동

한국지부 홈페이지와 블로그, 소셜미디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양적,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허핑턴포스트 등 외부 매체와 연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앰네스티의 목소리를 담은 매체가 다양해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웹&소셜미디어	43
제1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44



#FREE AJ Staff

이집트 정부는 구속된
기자들과 기자들을 석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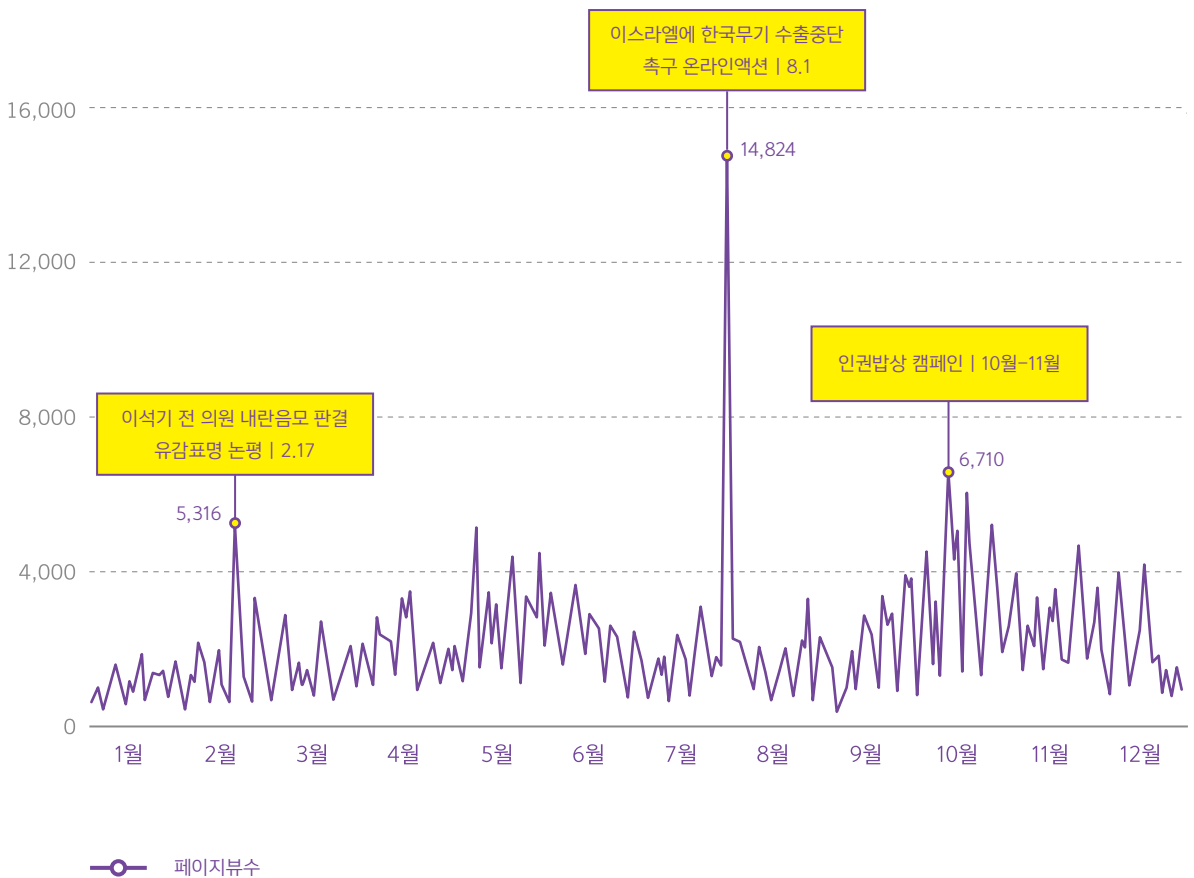
Media Works

웹&소셜미디어

홈페이지

총 방문자수는 지난해에 비해 28.6% 증가했고 이 중 신규 방문자수가 51.4%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 말부터 이스라엘에 한국무기 수출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액션이 진행됨에 따라 유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8월 1일 하루 14,824 페이지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월 17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판결에 대한 유감표명 논평도 많은 화제를 모았으며,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된 인권박상 캠페인이 꾸준한 관심 속에 높은 페이지뷰를 기록했습니다.

홈페이지 일별 페이지뷰



웹&소셜미디어

블로그 '휴먼로그'

외부필자를 기용하는 동시에 대중문화를 인권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등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기획, 발굴하여 꾸준히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휴먼로그를 통한 홈페이지 유입량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슈들을 인권과 접목하여 폭넓은 블로그 운영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를 중심으로 앰네스티 활동정보를 알리고, 참여를 유도해 나갔습니다. 연말에는 유료광고를 실시하여 공식페이지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앰네스티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었습니다. 트위터의 경우 팔로우 증가폭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올린 경찰 진압과 관련한 실시간 트윗은 하루 만에 뜨거운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1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매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하고,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한 언론인에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1997년 시작되어 올해로 제17회를 맞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에는 총 37편이 응모했으며, 5편의 본상과 1팀의 특별상을 선정했습니다.

KBS뉴스9의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그 동안 은폐되거나 축소·조작돼왔던 병영의 악습과 폐단을 만천하에 드러낸 연속 보도물입니다. 기획물이 아닌 보도프로그램에서 연속적으로 군대 내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심사위원단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한 연속보도라고 평가하여 전원일치로 수상작에 선정했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컸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군사법제도 개혁안도 힘을 얻는 등 군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해 캄보디아에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공수부대가 실탄을 발포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유혈참극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캄보디아 프놈펜의 노동자들을 취재하고, 결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밝혀낸 **KBS 추적60분** '메이드 인 캄보디아: 국경넘은 봉제산업, 시험대에 서다'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당신의 티셔츠에는 캄보디아 노동자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경구가 말해주듯 낮은 임금을 찾아 동남아로 떠난 한국기업의 뒤틀린 기업윤리를 방송을 통해 고발했습니다.

대전MBC '3·1절 특집다큐멘터리: 아버지의 일기장'은 지역방송사의 어려운 제작여건 하에서도 일본, 중국 등 현지를 찾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심층 취재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맞서 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부끄러운 과거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을 찾아 사죄한 용기있는 일본인 다나카 노부유키의 고백은 새로운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수작입니다. 아버지 무토의 일기장은 독립기념관에서 대표유물로 전시되었습니다.

경향신문 ‘헌법 위의 차벽 연속보도’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집회 등을 강제 진압하는 경찰의 불법성을 고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들, 예를 들어 통행을 가로막는 차벽과 강제연행, 불심검문, 불법채증으로 이루어지는 강압적 행태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법률적 논리를 통해 차분하게 밝혀냈습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차벽과 채증카메라가 치워졌을 뿐만 아니라 집회현장에서 불심검문과 미신고집회 해산명령도 사라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사IN ‘노란 봉투-우리가 만드는 기적 4만7천원’은 비인도적 조치인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회적 캠페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112일 동안 이어진 ‘노란 봉투 열풍’은 손배가압류라는 ‘생존권 위협’이 치졸하고 비윤리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한 사람이 4만7천원씩 모은 14억6,874만1,745원은 329가구의 ‘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별상은 JTBC 보도국 세월호 특별취재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세월호 참사현장인 팽목항을 백 여 일 동안 지키며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해준 현장 취재기자들의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정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메인뉴스 시간에 참사 현장의 목소리를 생방송으로 전달한 취재팀의 열정과 노고 역시 충분한 수상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품된 작품들 면면에 2014년의 인권이슈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숙자와 이주노동자들의 팍팍한 삶, 군 인권 문제, 끊이지 않는 ‘슈퍼갑’ 들의 울에 대한 성추행 그리고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1년 간의 이슈들을 인권의 언어로 풀어낸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합을 벌였다.”

— 김주연 심사위원장의 심사평 중



1

1. 제 17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자와 심사위원

2014년 가장 많이 본 국제인권뉴스

5,428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의
공개서한

3,790 

경찰의 인권침해와
무책임으로 브라질 월드컵
얼룩지지 말아야

3,295 

2013년 사형 현황:
집행건수 급격히 증가

2014년 가장 많이 참여한 온라인 액션

25,858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7,044 

민간인 학살에 사용되는
무기, 한국은 이스라엘에
무기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1,135 

사우디아라비아,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채찍질 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가장 많이 퍼진 트윗



748

★4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시위대 폭력 진압

6.17



696

★92

세월호 집회 현장
이름표 없는 경찰

5.24



*5월24일 세월호 집회 현장
관련 트윗 16개에 대한
RT 3,575



515

★105

경찰의 이름표 부착을
의무화 하는 해시태그 캠페인

5.29



2014년 페이스북 유저가 가장 좋아한 글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12.19

433 44

JTBC 세월호특별취재팀,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 | 11.19

426 36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활동가 테사의 죽음 애도 |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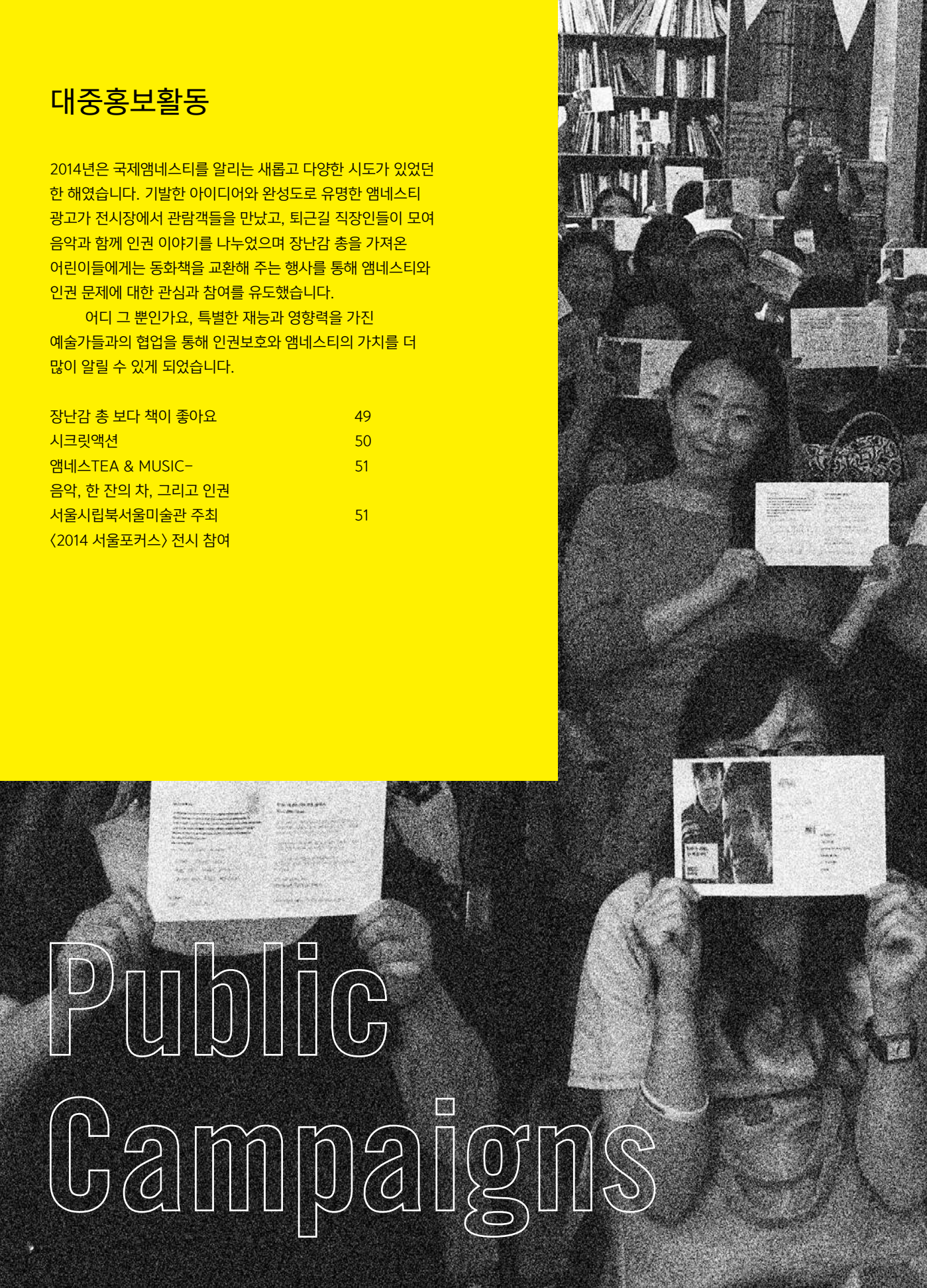
406 28

대중홍보활동

2014년은 국제앰네스티를 알리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완성도로 유명한 앰네스티 광고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났고, 퇴근길 직장인들이 모여 음악과 함께 인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장난감 총을 가져온 어린이들에게는 동화책을 교환해 주는 행사를 통해 앰네스티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어디 그 뿐인가요, 특별한 재능과 영향력을 가진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보호와 앰네스티의 가치를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난감 총 보다 책이 좋아요	49
시크릿액션	50
앰네스TEA & MUSIC-	51
음악, 한 잔의 차, 그리고 인권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주최	51
〈2014 서울포커스〉 전시 참여	



Public Campaigns

장난감 총 보다 책이 좋아요

2007년부터 시작된 ‘장난감 총 보다 책이 좋아요’ 캠페인은 무기거래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어린이에게 알리고, 폭력의 상징인 총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대신 책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상암월드컵 광장을 찾은 300여 명의 어린이들은 세계시민여권을 받아 무기와 인권에 대한 전시를 둘러보고, 무기거래의 문제점을 들은 뒤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의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손바닥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내몰리는 도래 친구들의 상황에 안타까워한 어린이들은 앞으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지 않겠다는 다짐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교보문고와 인권도서 기획전을 공동 개최하여 ‘장난감 총보다 책이 좋아요’ 캠페인 취지를 알리고 도서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총’ 대신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매년 어린이날에는 국제앰네스티가 함께 하였습니다.



1



2

1,2. ‘장난감 총 보다 책이 좋아요’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

시크릿액션

작년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가수 하림이 운영하는 예술가들의 모임 ‘아뜰리에 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예술가의 선의지로 전 세계 권리보유자들을 위해 활동을 선언하는 ‘시크릿 액션^{Secret Action}’ 프로젝트를 일 년여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예술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MBMR, 무기와 인권, 강제퇴거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듣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인권의 주제와 예술가의 감성이 만나 만들어진 그림과 시, 사진, 공연, 설치물들은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창동 토탈미술관에서 전시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예술가들이 시크릿액션에 참여하여 대중과의 접점을 늘리고, 인권과 예술이 결합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크릿액션 주제

3월 성과 재생산의 권리 | 몸, 그 권리에 대하여
5월 무기와 인권 | 총을 든 아이
6월 동성애와 인권 | LGBTQIA - over the rainbow
8월 강제퇴거 | 니가가라 하와이, 싱크홀
10월 표현의 자유



1



2

1. ‘아뜰리에 오’ 대표이자 국제앰네스티 후원회원인 가수 하림
2. 시크릿액션 진행 모습

앰네스TEA & MUSIC- 음악, 한 잔의 차, 그리고 인권

지난 여름,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차 한 잔'을 콘셉트로 열린 두 번의 행사는 가수 하림씨의 연주와 노래를 듣고, 로마족(집시) 어린이들을 위해 액션을 함께 한 6월 말의 '퇴근길 앰네스TEA'로 시작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이 한창이던 7월에는 월드컵으로 인해 치솟은 물가상승과 강제퇴거,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을 응원하고, 브라질 정부가 이들을 과잉 진압하지 않도록 마음을 담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샴바!'가 열렸습니다. 이 날 모인 회원과 지지자들은 신나는 브라질 음악 '바투카다'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춤도 추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No Foul Play, Brail'을 외치는 옐로카드 액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주최 <2014 서울포커스> 전시 참여

공익광고를 주제로 열린 <2014서울포커스>展에 국제앰네스티의 세 가지 광고가 초대되었습니다.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콘셉트로 아이슬란드 지부의 사진과 아티스트 추산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스위스 지부에서 만든 버스 쉼터 광고 시리즈 'It's not happening here, but it is happening now'가 실물로 재연되었습니다. 한국지부의 이주노동자 캠페인 '기계인간' 오브제도 함께 전시되어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인권을 향한 앰네스티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2

1. 브라질 정부를 향한 옐로 카드 액션
2. <2014 서울포커스>에 전시된 국제앰네스티 작품

회원활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은 그룹과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국제앰네스티의 활동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들이 사무처의 지원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룹 및 모임활동	53
대학생 네트워크	53



Group & Network

그룹 및 모임활동

그룹

청소년 예비그룹은 2월 대학생네트워크와 함께 '제1114차 위안부 정의회복을 위한 수요시위'를 공동 주관하였으며, 3월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름에는 글로벌 청소년 유테카라는 행사에 참가하여 청소년 예비그룹을 홍보하고 이스라엘의 무기수출 금지를 위한 온라인 탄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2그룹은 2월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을 상영하고 5월에는 My Body My Rights 6월에는 고문반대 캠페인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57그룹은 5월 '작은인권영화제 꽃'을 통해 시리아 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고통의 도시, 2012>와 <커피나무의 꿈>을 상영하였습니다.

고양지역 인권편지쓰기 준비모임은 12월 편지쓰는 밤을 개최하여 고양시 시민들과 함께 7가지 사례를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대학생네트워크 출신의 회원들이 모임 '포엠'(포스트 엠대) 이 새롭게 결성되어 4월 정기 이사회에서 그룹 준비모임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모임

한국지부 사무처와 그룹대표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5월 첫 모임에서는 그룹활동이 더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7월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회원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사회 산하 반성폭력위원회에서는 7월, 지부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한 규정 제정을 목적으로 그룹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해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생네트워크

엠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이하 엠대)는 2014년 상반기 국가보안법폐지 캠페인 '나는 시방 위험한 매체다'를 비롯하여 영화 <밀양전> 공동체 상영회를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주관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여러 시민사회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국립국어원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랑" 뜻풀이 재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엠대 회원 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다 운영진이 선출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어 <국제엠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대책 수립을 위한 논의모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6년 간의 엠대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방향성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에는 새로운 엠대 회원들을 모집하는 마중물 행사로 균형법상 '추행'죄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회원 발제 그리고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강연으로 구성된 오픈 세미나를 열기도 했습니다.



1

1. 고양시 회원들의 '편지쓰는 밤'



2

2. 거리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 대학생 네트워크

회원성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6년 간의 장기계획인
통합전략계획ISP(2010-2015)에서 지금까지 이룬 성장을
내실화 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활동의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제 2의 성장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하우스(in-
house)로 전환된 주요모금사업을 안정화하고 확장하여
내부역량강화를 모색하였으며 새로운 지지층을 발굴하고
인권영향력을 높였습니다. 2015년은 앰네스티의 차별화된
강점을 활용하여 기존 지지층을 강화하고 회원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인권영향력을 높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후원회원수와 재정	55
후원회원의 연령과 성별비율	57

Growth



후원회원수와 재정

2014년 12월 현재 한국지부 후원회원 수는 1만 2,823명으로 2013년과 비교하면 1년간 약 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후원정보를 확인하고자 진행된 리액티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그 동안 미납, 후원불능 등 오래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DB 정비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후원회원의 전체 수는 감소율을 보였지만 리액티베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회원님 한 분 한 분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후원회원님들의 성향과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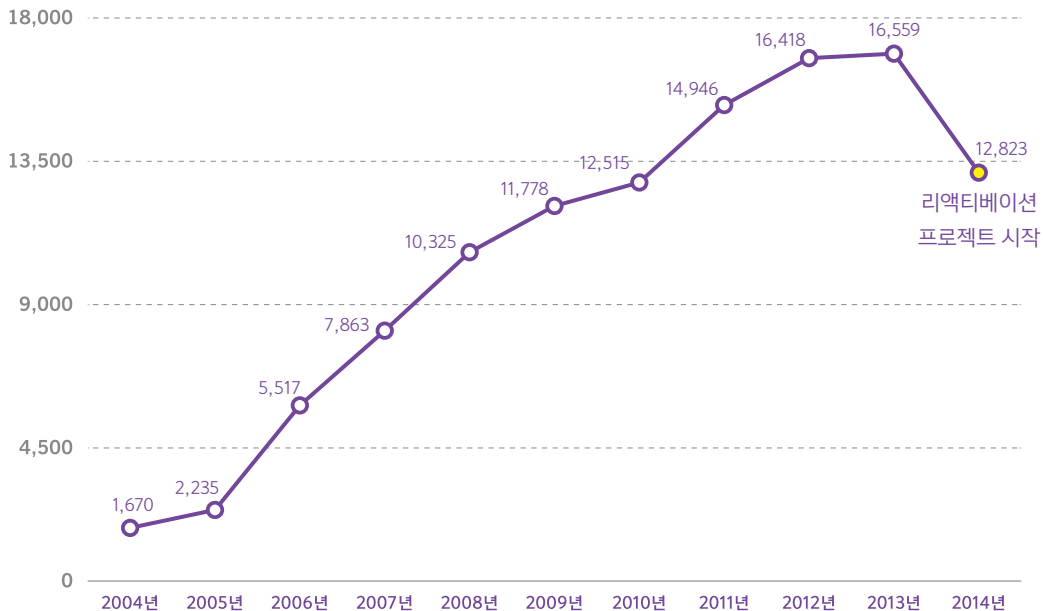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지키는 엄격한 내부지침에 따라 일시후원 캠페인은 2%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해피빈을 비롯한 웹 일시후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모금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원 회원 1인은 월평균 14,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리액티베이션 프로젝트 Reactivation project

2014년 9월부터 약 4개월 간, 후원금이 잘 전달되지 않는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후원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지부의 회원 수가 급성장을 이루었던 단면에는 후원이 지속되지 않거나 변경되지 않은 오래된 개인정보가 누적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경된 후원정보를 수정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후원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회원 DB를 정비하고 안정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연결이 된 회원들 중 600명이 후원을 재개해 주셨으나 중단과 탈퇴를 요청한 회원도 있었습니다. 전화 연락이 닿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회신여부에 따라 추후 후원 임의 중단 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후원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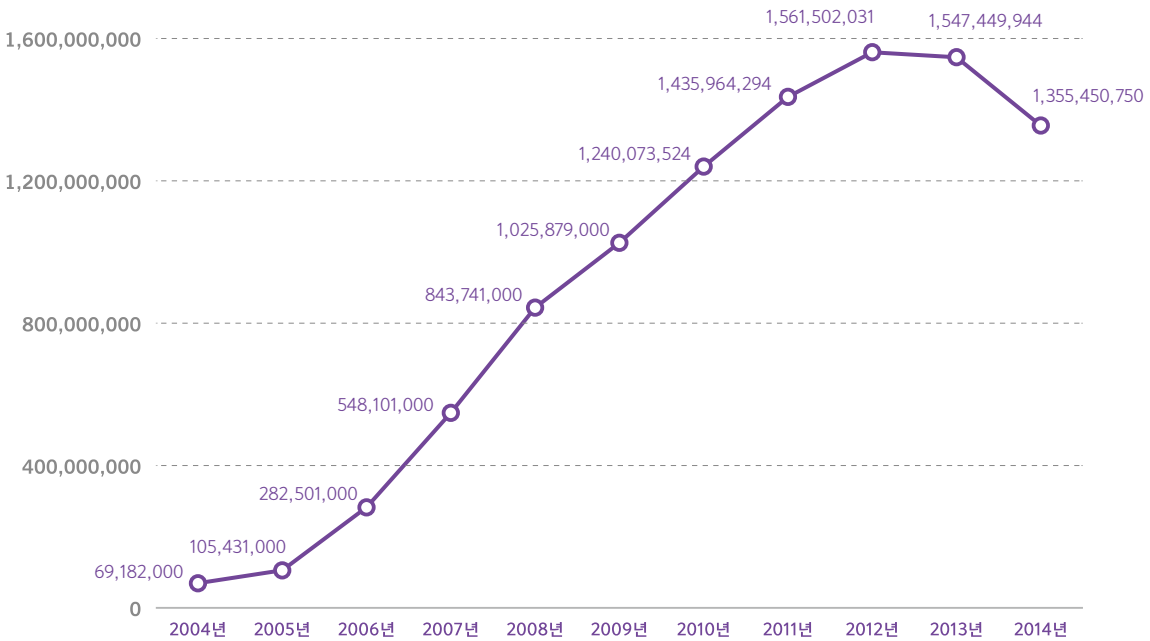
(단위: 명)



후원회원수와 재정

연도별 후원회비수입

(단위: 원)



연도별 후원회원수와 후원회비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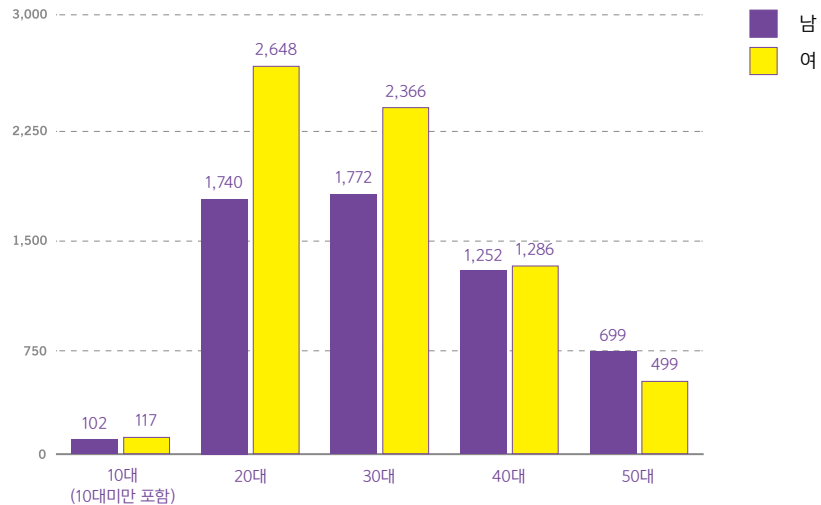
연도	후원회원수	후원회비수입
2004	1,670	69,182,000
2005	2,235	105,431,000
2006	5,517	282,501,000
2007	7,863	548,101,000
2008	10,325	843,741,000
2009	11,778	1,025,879,000
2010	12,515	1,240,073,524
2011	14,946	1,435,964,294
2012	16,418	1,561,502,031
2013	16,559	1,547,449,944
2014	12,823	1,355,450,750

후원회원의 연령과 성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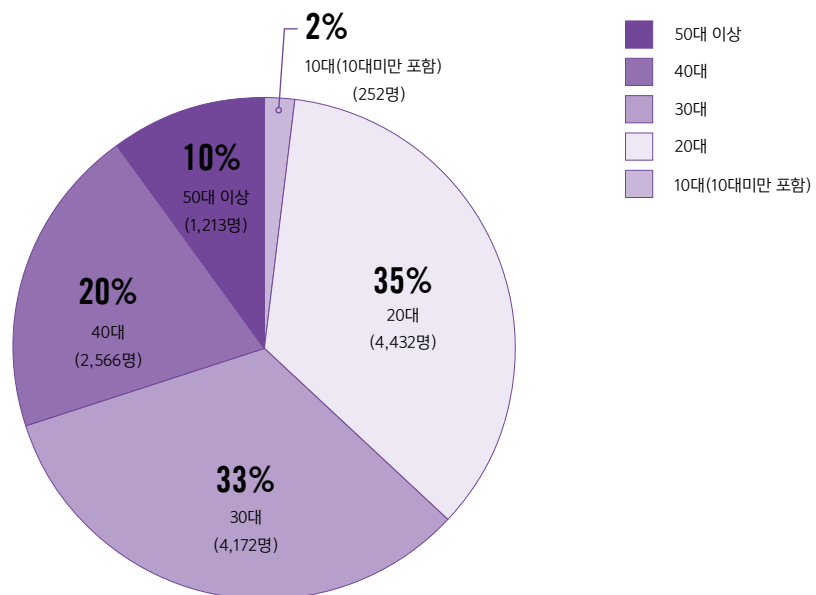
연령과 성별확인이 가능한 후원회원 총 12,481명 중 20대가 4,388명(35%)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30대 4,138명(33%), 40대 2,538명(20%), 50대 1,198명(10%), 10대(10대미만 포함) 219명(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의 후원회원이 총 후원회원의 68%로 젊은 회원들의 비중이 많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40~50대 후원회원의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약 3% 높아졌습니다. 성별비율을 보면 여성후원회원 55%, 남성후원회원 45%로 여성후원회원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후원회원은 총 회원 수의 21%로 다른 연령대나 성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회원의
연령, 성별분포

(단위: 명)



후원회원의 연령분포



재정보고

국제앰네스티는 재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독립성·공익성·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수익은 '인권'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59
지출	60
목적별 사업비 지출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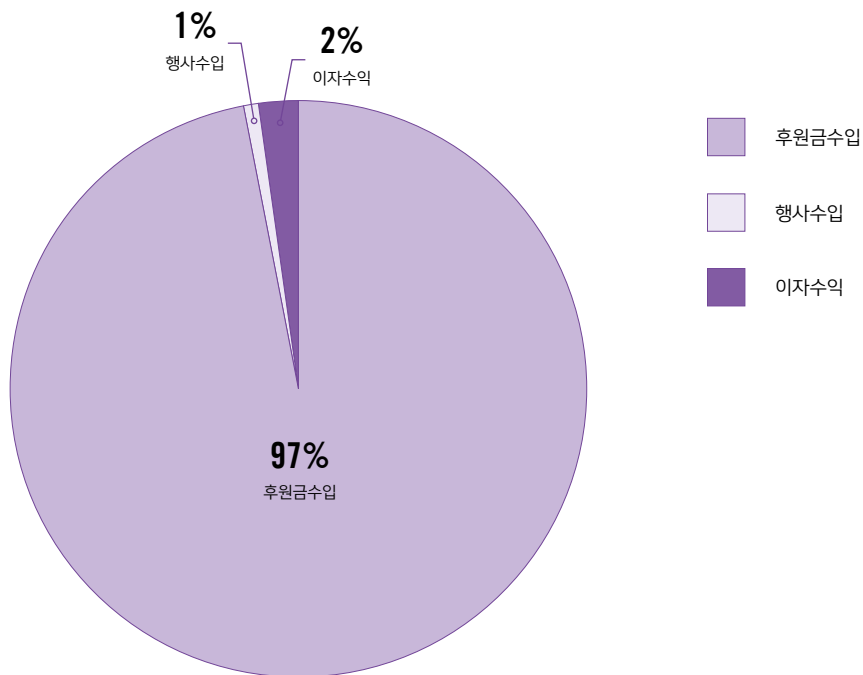
Financial Report



수입

		2014년			예실대비(%)
관	합	예산	수지결산	(%)	
사업수입	회비수입	6,000,000	2,600,000	0%	43%
	후원금수입	1,601,000,000	1,384,869,997	97%	87%
	행사수입	5,400,000	4,456,000	1%	83%
	국제기금	0	0	0%	0%
	사업수익 소계	1,612,400,000	1,391,925,997	98%	86%
사업 외 수입	이자수익	27,500,000	29,317,829	2%	107%
	기타수입	0	2,093,525	0%	2093525%
	사업 외 수익 소계	27,500,000	31,411,354	2%	114%
계		1,639,900,000	1,423,337,351	100%	87%

2014.01 ~ 2014.12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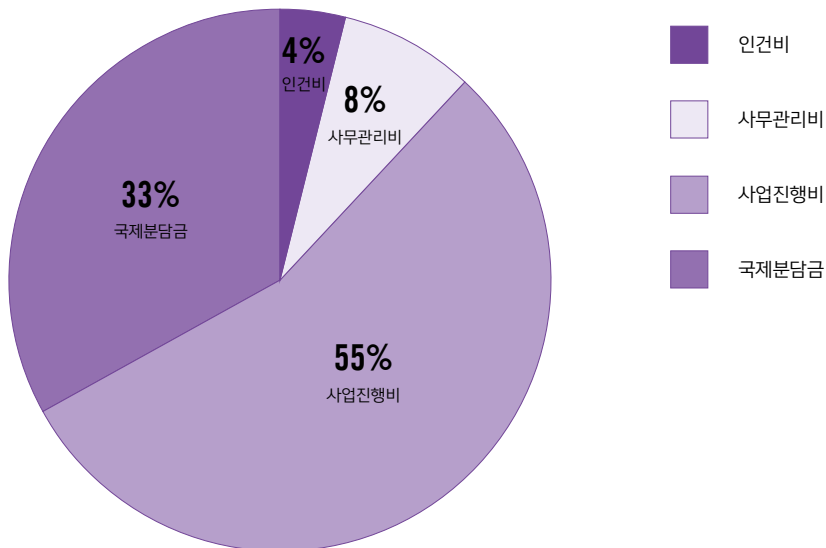


지출

2014년

관	합	예산	수지결산	(%)	예실대비(%)
일반 관리비	인건비	53,342,817	52,706,277	4%	99%
	사무관리비	161,483,650	124,158,678	8%	77%
	일반관리비 소계	214,826,467	176,864,955	12%	82%
목적 사업비	사업진행비	1,066,963,525	810,041,557	55%	76%
	국제분담금	267,210,008	479,635,936	33%	179%
	목적사업비 소계	1,334,173,533	1,289,677,493	88%	97%
사업 외 비용	지급이자	6,000,000	0	0%	0%
	기타비용	600,000	67,022	0%	11%
	예비비	84,300,000	0	0%	0%
	사업 외 비용 소계	90,900,000	67,022	0%	0%
계		1,639,900,000	1,466,609,470	100%	89%

2014.01 ~ 2014.12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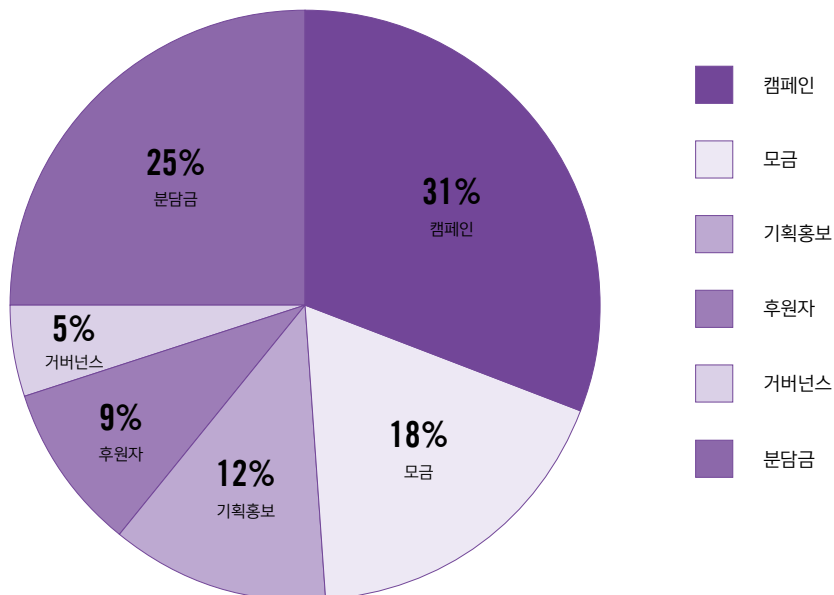
*수입과 지출은 예실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에 의해 작성 된 것입니다.
*사업 인건비는 사업진행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목적별 사업비 지출

구분	금액	구성비
캠페인	335,412,016	31%
모금	194,963,604	18%
기획홍보	133,759,253	12%
후원자	96,649,200	9%
거버넌스	49,257,484	5%
분담금	267,210,008	25%
계	1,077,251,565	100%

2014.01 ~ 2014.12

(단위 : 원)



*목적별 사업비는 예산대비 수입지출현황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감사를 통해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성과표에 의해 작성 된 것입니다.
(단, 2014년 실 사용한금액으로 지출부분의 목적사업비와 금액 (2016년 국제분담금충당부채 및 미지급금_212,425,928)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재정보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

2014년 한국지부는 법인회원 및 임원 교차선출제 도입,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등 의사결정구조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인회원 제도는 향후 한국지부를 이끌어갈 리더층을 확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선출된 이사회는 국제정책, 임원추천, 회원리더십, 반성폭력문화, 모금 등의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 및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5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했습니다.

2014년 정기총회 개최	63
신임 22기 이사회 선출	63



Governance

2014년 정기총회 개최

2014년 정기총회는 3월 15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법인회원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엠네스티의 모든 지부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규범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법인회원들이 2015년에 납부할 연회비를 법인회원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1박 2일이 아닌 하루만 진행된 첫 총회로 각종 사업보고, 안건 의결, 임원 선출, 캠페인 활동 등 매우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어느 때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임 22기 이사회 선출

2013년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 교차선출제도를 도입한 후 이번 총회에서 첫 임원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차선출제 시행을 위해 예년과는 달리 2년 임기와 1년 임기의 이사를 선출했습니다.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5명, 감사 2명이 입후보했고, 입후보자 모두 과반수 유효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2기 이사회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출범 이후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기 이사회의 활동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22기 이사회〉

이사장: 전경옥

부이사장: 김규환

이사: 박명희, 박채원, 연제현, 이윤중, 임한욱

감사: 구성기, 진영중



1

1. 2014년 정기총회 단체사진

2014년 돌아보기

그 어느 해보다 인권침해 사건이 많았던 2014년. 숨가쁘게 달려온 국제앰네스티의 활동들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에도 국제앰네스티는 변화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후원회원과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At a Glance 2014

2월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성 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아들리에 오(대표: 하림)’와 시크릿액션을 위한 MOU체결
-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판결에 유감 표명
-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보도자료 배포
- 대통령 취임 1년에 즈음한 살릴 셰티 ^{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서한 발송
- 새내기 후원회원 모임 개최
- 소식지 ‘앰네스티인’ 2014-1호 발행
- 대학생네트워크: 영화 ‘밀양전’ 공동체 상영회 개최,
- 국가보안법 오프라인 액션
- 청소년예비그룹: 제111차 수요시위 주최
- 22그룹: 영화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 상영

3월

- 3.8 여성의날, ‘My Body My Rights’ 캠페인 시작
- 연례사형 현황보고서 『2013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발표
- 바레인워치 ^{Bahrain Watch} 대표단 방한: 한국산 최루탄 수출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토론회, 정부부처 면담, 공개 간담회 개최
- 올 해의 케이스 선정: 류 샤오보+류 샤(중국), 하카마다 이와오(일본), 미리암 로페즈(멕시코), 이하르 치하니우크(벨라루스), 김성민(한국)
- 김정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전 지부장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탄원 시작
- 국제앰네스티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1기 시작
- 시크릿액션 ‘My body My right: 몸, 그 권리에 대하여’ (성과 재생산의 권리)
- F2F(거리모금 캠페인) 리런칭
- 한국지부 정기총회 개최
- 청소년예비그룹: 2014 오리엔테이션

4월

- 오드리 고크란 ^{Audrey Gaughra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국장 초청강연회
- 인권친화교실 1차 패키지 ‘우리별 인권 약속’ 배포
- 각국 정부의 무기거래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 소식지 ‘앰네스티인’ 2014-2호 발행



1



2

1. 바레인워치 대표단의 공개 간담회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2. 시크릿액션 '몸, 그 권리에 대하여'

5월

- 고문중단캠페인 'Stop Torture' 시작
- 글로벌 여론조사 '고문에 대한 인식' 결과 발표
- 어린이날, '장난감 총보다 책이 좋아요' 행사 개최
- 교보문고와 함께 하는 엔젤북캠페인 시작
- 새내기 후원회원 모임 개최
- 시크릿액션 '소년병: 총을 든 아이' (무기와 인권)
-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무기보다 꽃' 거리캠페인
- 대학생네트워크: 국립국어원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랑' 뜻풀이 재개정 철회 촉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 공동주최
- 57그룹: '제5회 작은인권영화제 꽃' 개최
- 22그룹: MBMR 거리 캠페인

6월

- 인권친화교실 2차 패키지 '차별 없는 별' 배포
- 엠네스TEA&MUSIC '퇴근 길, 엠네스티' 개최
- My Body My Rights 액션패키지 배포
- 청소년 인권교육 MBMR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개최
- 영화로 보는 인권 MBMR '프레스스' 상영
- 영화로 보는 인권 MBMR '자, 이제 댄스타임' 단체관람
- 퀴어문화축제 참가
- 국제엠네스티 캠페이너 양성과정 프로젝트 1기 보고회
- 고전압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시크릿액션 'LGBTQIA: Over the rainbow' (동성애)
- F2F 광주광역시 방문
- 새내기 후원회원 모임 개최
- 22그룹: 고문 반대 거리 캠페인



1

1. 퀴어문화축제
2. F2F의 고문중단캠페인

7월

-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 GV 시사회 개최
- 엠네스TEA&MUSIC '모두가 행복해지는 쌤바!' 개최
- '찾아가는 엠네스TEA' 진행
- 청소년인권교육 'Speaking Out!' 프로그램 진행 (인천 선인고, 대구 남산고, 김해 중앙여고)
-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관련 질의서 발송
- 한국정부에 이스라엘로의 무기수출 전면 중단 촉구하는 탄원 캠페인 시작
- 지부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방지를 위한 반성폭력위원회 세미나 개최

8월

-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중단 촉구' 기자회견과 손피켓 액션
- 인권친화교실 3차 패키지 '빈곤과 인권' 배포
- 트리니렁 Trini Leung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 수요시위 참석
- 한국지부 법인회원 모집 시작
- 시크릿액션 '싱크홀: 니가 가라, 하와이' (강제퇴거)
- 소식지 '엠네스티인' 2014-3호 발행

9월

- 국제엠네스티 인권교육 멀티플라이어 양성과정 시작
- 엠네스티 수요극장 '프랭크' 상영
-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공모
- 새내기 후원회원 모임 개최



2

10월

-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 캠페인 시작
-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한살림 가을걷이 행사(서울,대전)에서 인권밥상 탄원서명
- ‘사형폐지 포스터를 빌려드립니다’ 프로젝트 시작
-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한국인권 7년의 기록〉 초청강연
- 앰네스티 수요극장 ‘지미스홀’ 상영
- 시크릿액션 전시회 개최,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토론
- 소식지 ‘앰네스티인’ 2014-4호 발행

11월

- 2014 편지쓰기마라톤 캠페인 시작
- 인권입문과정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시작
-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인권밥상 탄원서명
-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인권밥상 탄원서명
- 19대 국회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주최
- 새내기 후원회원회원 모임
- 대학생네트워크: 오픈 세미나 ‘동성애 처벌법, 균형법상 ‘추행’죄와 성소수자 운동’ 개최

12월

- 세계이주민의날, 농축산업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 ‘편지 한 통의 기적, 2014 편지쓰는 밤’ 개최
-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개최
- 앰네스티 수요극장 ‘카트’ 상영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
- 한국 정부의 對터키 최루탄 수출 중단을 요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 사형집행중단 17년 종교인권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 굿뉴스레터 ‘2014, 당신이 만든 특별한 변화’ 제작
- 대학생네트워크: 오픈 세미나 ‘디지털 시대, 감시와 인권’
- 고양지역 인권편지쓰기 준비모임: ‘고양지역 2014 편지 쓰는 밤’ 개최



1



2

1.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공동선언 기자회견
2. 새내기 후원회원 모임

발행일 2015년 2월 25일
발행인 전경옥
발행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웹사이트 amnesty.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45호
전화 02 730 4755
디자인 일상익실천 www.everyday-practice.com



누구나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권리!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이 말하고 더 바쁘게 움직이겠습니다.
**후원금 증액으로 한국지부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세요.**

후원 및 문의
02-730-4755
donate@amnesty.or.kr

우리, 말할 수 있을까?

정기후원금 증액

매월 내고 계신 후원금을 조금 더 올려 주시면
인권을 위한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더 큰 힘이 됩니다.

홈페이지

amnesty.or.kr/support >> 후원금 증액
>> 로그인 >> 후원정보 옆 CMS정보변경
>> 후원금 증액

전화

02-730-4755

일시후원

단 한 번의 후원도 앰네스티에겐 소중한 힘이 됩니다.

홈페이지

amnesty.or.kr/support >> 일시후원

계좌이체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사)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1977년 노벨 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국제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입니다.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2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분노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에 의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전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300만 회원 및 지지자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실태 조사와 캠페인을 수행하는 세계 최대 인권 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 종교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창립된 이후 현재 1만 6,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무기거래통제 그리고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